

서울지역 대학 정시 경쟁률 급상승

물수능·영어 첫 절대평가에 막판까지 눈치싸움 치열

원서접수 직전 인원 2~3배 몰려 상위권 7개 대학 경쟁률 6.91대1 정시모집 인원 감소 영향도 커

서울지역 대학들의 2018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상승했다. 원서접수 직전 모집인원의 2~3배수의 지원자가 몰려 막판 눈치 작전도 치열했다. 수능 영어의 첫 절대평가 도입과 쉬운 수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불과 3시간 만에 홍익대학교 정시모집에 원서를 낸 지원자가 3752명 늘었다. 이 대학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1055명으로 원서접수 직전 모집인원의 약 3.5배의 인원이 몰려든 것. 이 학교 최종 경쟁률은 9.92대 1로 폭등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했다. 대학별로 원서접수 직전 3시간만에 증가한 모집정원 대비 인원은 한양대가 2.94배, 연세대 2.20배, 성균관대 2.07배, 서울대가 1.98배, 서강대가 2.45배에 달했다. 마감전 4시간 동안 건국대 3.01배, 동국대 2.50배, 고려

(서울지역 대학 2018 정시모집 경쟁률)

대학명	2018학년도 (9일 최종)		
	모집 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건국대	1,436	11,538	8.03
홍익대	1,055	10,470	9.92
한양대	984	5,828	5.92
연세대	1,313	7,004	5.33
동국대	938	5,729	6.11
숙명여대	972	4,078	4.20
고려대(안암)	802	4,298	5.36
한국외대	660	3,376	5.12
경희대	743	4,406	5.93
성균관대	902	5,158	5.72
서울시립대	765	3,924	5.13
서울대	878	3,768	4.29
이화여대	747	3,721	4.98
서강대	501	3,084	6.16
총합계	12,696	76,382	6.02



대 2.53배, 한국외대 3.03배, 경희대 2.64배, 이화여대 1.66배 지원자가 늘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시내 14개 대학의 마감직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만나질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경쟁률

이 3.47대 1에서 최종 6.02대 1로 약 1.7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자로 보면 4만4061명에서 7만6382명으로 급증했다. 인문계열에서는 고려대 영어교육과가

마감직전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최종 경쟁률은 20.67대 1로 폭등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계에서는 건국대 식품영양학과가 1.88대 1에서 최종 12.13대 1로 큰 폭 상승했다. 이처럼 원서접수 직전 눈치작전이 치열했던 이유는, 올해 수능 영어의 첫 절대평가 시행으로 인한 변별력 상실과 타 과목의 영향력 증대 등 '풍선효과'에 따라 수험생들이 지원전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은 "올해 영어 절대평가 첫 시행으로 성적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때문"이라며 "특히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반영비중이 증가해 특정 과목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정시모집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해 마지막까지 눈치경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상위권 7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6.91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6.21

대 1에서 크게 상승했다. 경쟁률 상승은 정시모집 인원 감소의 영향이 크다. 올해 이들 7개교 모집인원은 6027명으로 전년도 6595명에서 568명(8.6%p) 감소했다. 대학별 경쟁률을 보면, 서울대는 4.36대 1, 고려대 5.36대 1, 연세대 5.33대 1, 서강대 6.86대 1, 성균관대 6.42대 1, 중앙대 5.26대 1, 한양대 8.96대 1, 이화여대 5.0대 1, 경희대 5.93대 1, 덕성여대 8.18대 1, 성신여대 6.31대 1, 숭실대 8.12대 1, 명지대 6.59대 1, 삼육대 11.26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의과대 경쟁률은 소폭 하락한 반면, 일부 대학을 제외한 국공립대와 교육대학 평균 경쟁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 중 인하대 의대가 22.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국 36개의 과대 평균 경쟁률은 전년 7.94대 1에서 올해 6.96대 1로 감소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 평균 경쟁률은 4.88대 1(전년 4.38대 1)이었고, 12개 교육대 평균 경쟁률은 3.56대 1로 전년 3.26대 1에서 상승했다. 국공립대 중 강원대, 충남대, 경북대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中企보다 스타트업... 올해 취업전망 '맑음'

사람인, 기업유형별 채용현황 분석 스타트업 성장·투자 등 지원 시작



경기 지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지만 취업자 수는 좀처럼 3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채용 계획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스타트업 취업 전망은 '맑음'으로 분석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유형별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스타트업 취업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취업 전망이 좋은 이유는 지난해 스타트업 성장과 투자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고, 올해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다. 우선 정부는 올해 1조원 이상을 출자해 3조원 이상 규모의 혁신·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블리카의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 KPMG와 벤처캐피털(VC) H2벤처스가 선정한 2017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3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5년 초 10명 남짓하던 임직원 2년 새 115명으로 늘었고 채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네이버도 스타트업 육성센터를 통해 창업자를 지원하는 등 적극 투자도 눈에 띈다. 명함관리 '리멤버'에 50억 원, 우아한 형제들에 350억 원 등 기업 자체에 투자를 한다. 투자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에 따른 채용시장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올해 채용 기상도는 '흐림'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이슈로 인해 채용 전망이 불투명하다. 사람인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585명 대상 새 채용계획을 설문한(6%) 결과, '지나해와 비슷'(51.6%)하거나, '더 악화될 것'(25.6%)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전년과 동일'(39.7%)하거나 '감소'(17.5%) 할 것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한용수 기자



학생들이 만든 구명조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진로교육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만든 구명조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이끌 전문인력 8000명 양성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이끌 산업·에너지·무역 등의 전문인력 약 8000명을 양성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산업부 인력양성계획'에 따르면 올해 산업별 전문인력 2684명, 지역 연구인력 2463명, 에너지 전문인력 1500명, 무역 전문인력 1280명, FTA 전문인력 150명 등 8000여 명의 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 5340명에 대한 평생학습 교육, 전국 71개 공과대학생 2만 1000명의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육 지원,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120명의 재취업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400억원 보다 4.5% 증가한 1463억원을 올해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분야의 경우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 신소재 3D프린팅, 친환경·스마트선박,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고신뢰성 기

계부품, 고부가 금속소재 등 5개 신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하고 미래형자동차·드론·바이오·나노융합 등 기존 22개 인력사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도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전력·원자력 분야에서 학부·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R&D와 연계를 강화한 지원으로 현장맞춤형 연구전문인력 1500여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대상으로는 ▲R&D연구과제 지원전문과 과정 ▲연구장비(SEM, TEM 등) 오퍼레이터 과정 ▲정보통신(ICT) 기반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등 산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산업인력양성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강화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영남권 학교 내진보강 앞당겨"... 교육부, 예산 1000억 증액

내진보강 완료시기 10년 단축키로 2024년까지 평균 1700억원 투입

전국 초·중·고교의 내진보강 사업이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영남권 등 지진위험지역에 향후 7년간 1조1900억원을 투입,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 기간도 5년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 지진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학교 건물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2024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했다. 지진위험 이외 지역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지원한다. 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36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5년 단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매년 35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해 포함지진에 따라 파손된 235개교에 피해복구비 202억 원과 내진보강비 4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립대학교도 올해부터 5년간 당초 예산의 2배인 매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단축한다. 2018년 현재

국립대학 내진비율은 56.4%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긴급대피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강당이나 체육관 등을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내진 성능평가와 설계 등을 담은 매뉴얼 개발도 추진한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함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